

집편 회학어선조

회글

第三卷 第六號 (七八月合號)

畝七錢

昭和十九年八月十四日(第三種郵便物認可)

차 목

조선어학회의 발전	이	극	(1)
몰이씨의 으뜸말에 대하여	최	현	(2)
朝鮮語學會의 新會館	金	善	(6)
巴里消息	이	琪	(8)
글	金	正	(8)
물음과 대답	方	鍾	(10)
한글 연구 圖書 解題(5)	方	鉉	(12)
독자의 소리	李	魯	(14)
外來語 表記에 대하여	李	克	(19)
普通學校 朝鮮語 學習 指導案	李	東	(20)
한글 바꾸잡아쓰기 익힘	李	洙	(24)
文學과 文士와 文章	李	光	(27)
朝鮮歷史講座(상고전)	李	洙	(31)
로빈손 무인철도 풍류기(四)	李	洙	(34)

社 告

일이 뜻같이 되지 아니하여, 이번 호가 또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대하여 무엇이라 사과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호가 이왕 늦었이니 팔월호에 합하여 한호로 하고, 팔월 일일 발행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월호부터는 꼭꼭 그 기일을 어기지 않고 발행할 예정입니다. 애독 제씨는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잡지 대금에 대하여는 오월호 휴간한 것과 칠, 팔월 합호한 것을 치면 두달분 대금이 남는 것이니, 이것을 최후의 두달분 대금으로 가산하여 처리하였사오니, 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어학회의 발전

이제 조선어학회라 하면, 해내 해외를 물론하고 조선말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이 학술단체는 어떻게 되어 왔나 간단히 적으려 한다.

조선사람도 현대 문명의 맛을 본 뒤로 문화의 기초인 말과 글을 먼저 정리하여야 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먼저 알고 나선이는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돌아가신 주시경 선생이다. 선생이 동무들을 데리고 한글 연구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으나, 상당한 연구실 한칸을 가지게 못되었고, 다만 이십여년을 채보에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연구회가 되었었고, 그 뒤로도 늘 그리고 지내어왔다. 그리다가 이제로 육년전에 비로소 서울 수표정 사십이번지 조선교육협회 집안에서 방한간을 얻어가지고 결방살이로 문패를 붙이게 되었다. 그 뒤로 우리는 사전(辭典) 편찬, 잡지 간행, 철자법 통일안 작성, 이 밖에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장산사 사장 정세권(鄭世權)씨로부터 서울 화동 일백 이십구번지 이충양옥한채를 조선어학회 회관으로 감사히 제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금년 칠월 열하로날에 이 집으로 회관을 옮기게 되었다. 조선어학회가 만 문패를 붙이고 독립한 호주가 된것은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 일이다. 이 학술단체가 독립한 호주가 되도록 성장한것은 오직 조선어학회 회원의 노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이 과학적 사업에 대한 조선 사회의 많은 동정이 있는 까닭이다.

끝으로 우리 조선어학회는 조선 사회에 대하여 특별히 정세권씨에 대하여 감사함을 마지 아니하는 동시에, 우리는 적은 힘이나마 더욱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바라는바를 이루도록 힘쓰려 한다. (이극로)



6818049

풀이씨의 으뜸꼴(原形)

대하야

최현배

조선말의 연구가 아직 여러 방면으로 보아 모두 초보의 단계에 있는 오늘의 현상에서는 풀이씨(用言)의 으뜸꼴(原形)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문법상 한 중요한 문제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울측씨나 어녕씨의 으뜸되는 꼴이 무엇일까. 이를테면

- (1) 씨울로 간다, 가겠다, 갔다, 가더라, 가면, 가니, 가고, 갈 사람, 간 사람, 가시, 가도, 가다, 가기, 가게.

- (2) 밥을 먹는다, 먹겠다, 먹었다, 먹더라, 먹으면, 먹으니, 먹고, 먹을 사람, 먹은 사람, 먹어서, 먹어도, 먹다, 먹기, 먹게.

의 두 가지의 울측씨에서 각각 어느 것이 그 으뜸꼴(原形)일까? 어느 것이 기본형(基本形)이 되고, 다른 것은 다 그것의 변형(變形)이 될까? 풀이씨의 으뜸꼴은 다른 모든 꼴의 기본이 되며, 따라 다른 모든 꼴

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으뜸꼴이 다른 모든 꼴의 대표가 되어서 사전(辭典)에 올릴 것이다. 그러하면 누구든지 사전에 있는 그 으뜸꼴을 기본으로 삼아서, 文法에서 규정한 일정한 문법적 규칙에 의지하여 그 말의 운용을 해독할 것이다. 이와 같이 풀이씨의 으뜸꼴이란 것은 그 의의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조선말에서는 아직도 이렇듯 중요한 풀이씨의 으뜸꼴이 완전히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연구자의 머리에 문제로 나타나게 됨은 당연한 것이다.

III

풀이씨의 으뜸꼴에 대하여 나타난 생각을 들어보면 (예로) 먹다, 먹고.....의 으뜸꼴을 가지고 말하자면)

- (1) 『먹』으로써 으뜸꼴을 잡는 것,
- (2) 『머그』로써 으뜸꼴을 잡는 것,
- (3) 『먹는다』를 가지고 으뜸꼴을 잡는 것,
- (4) 『먹기』로써 으뜸꼴을 잡는 것,
- (5) 『먹다』로써 으뜸꼴을 잡는 것,

의 대략 다섯가지가 있다.

그런데 첫째것은 주시경 선생의 실이요, 둘째것은 박승빈씨의 실이니, 이는 다 단어성립의 원의가 정하지 못하여 『먹』이나 『머그』로써 한 단어로 잡은 그것부터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먹』이나 『머그』는 한 단어의 줄기(幹)가 될지언정, 결코 그것에 한 독립한

단어가 될수는 없을것이다. 케 홀로는 우리에게 아무 독립적 개념을 주지 못하는 『덕』, 『머그』 따위나 그 알에 붙는 토라는 『다, 고, 니』 따위가 다 각각 한낱의 독립한 씨가 된다는것은 너무도 분석에 지나친 실명법이라 할수밖에 없다. 더구나 박승빈씨의 『머그』로써 으뜸말로 잡는것의 잘못된 이론은 내가 이미 그의 소위 단활용설(段活用說)을 비평할적과 또 풀이씨의 즐기잡기의 문체를 論할적에 비교적 자세히 실과 하였다고 생각하는고로 여기에서는 반복하지 아니한다.

【三】

다음에 『머그』로써 그 으뜸씨의 으뜸말을 삼고자 하는 생각인 영어의 infinitive(不定法)에서 온듯하다. 영어의 infinitive 는 그 표로 전치사(前置詞)를 그 앞에 가진 으뜸씨(보기 to go, to study……)를 이름이니, 이는 으뜸씨와 이름씨의 성질을 다 가지고 인칭(人稱)과 수(數)에 무관계하게 쓰이는 따위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우리말의 으뜸씨의 이름말(名詞形)은 『○○기』가 으뜸씨이면서 이름씨의 성질을 가진 첨에서 커 영어의 불정법(不定法)과 비슷하다. 그래서 『○○기』로써 조선말의 으뜸씨의 으뜸말이라 하는 생각이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아니하다. 우선 영어의 불정법의 용법의 우리의 이름말 『○○기』하고 자세한 첨에서 다른것의 많음은 이제 자세히 말하지 아니하거니

와, 다만 그 불정법의 불정법되는 소이를 고찰하면, 그것이 이름씨같은 성질을 가진것의 그 근본뜻이 아니요, 그것이 인칭과 수를 따라서 그 형(形)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첨에 그 근본뜻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불정법은 무한법(無限法)이라고도 할수 있다. 다시말하면, 그 소위 불정법은 인칭과 수를 따라서 그 형이 변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형——곧 인칭과 수를 따라 변화하는 여러가지의 형에 비하여는 가장 기본적 형에 가까운것이다. 이것이 영어의 불정법으로써 으뜸씨의 으뜸말을 삼는 까닭이다.

그러한데 이제 영어의 불정법을 직역적(直譯的)으로 해석하여 이름말 『○○기』로써 조선말의 으뜸씨의 으뜸말을 삼고자함은 불정법의 원의(原義)를 버리고 그 지엽적(枝葉的) 용법을 취한 직역문법설(直譯文法說)이라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四】

그러면 우리말에서 으뜸씨의 어떠한 말이 正當히 으뜸말이 될수 있을까? 그것은 마땅히 시간이라든지 말하는이의 의사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가지의 케이차적 용법에 의지한 변형을 입지 아니한 끝이라야 할것이다. 그것이 어떠한것일까? 나는 생각한다. 풀이씨의 으뜸말은 그 줄기에 씨끝 『다』를 붙인것이다. 앞의 보기말을 가지고 말한다면,

가다
먹다

가 으뜸끝이다. 이것은 시간, 의사, 자격변경, 짐속 등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지 아니한 끝이니, 청히 으뜸끝이 될만한 조건을 구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시간적 가미를 받아서는

먹다—먹었다, 먹겠다, 먹었었다...

로 되고, 의사의 가미를 받아서는

먹다—먹겠다

로 되고, 그 자격을 바꾸어서는

먹다—먹은, 먹을, 먹는, (어떤씨같이)

—먹어, 먹게, (어찌씨 같이)

—먹기, 먹음 (이름씨 같이)

로 되고, 알도 말을 이어서는

먹다—먹으면, 먹으니, 먹고.....

로 된다.

그뿐아니라 『먹다』는 말을 해야 끝맺는 끝이니, 끝맺는 것이 풀이말의 本然의 性質이라 할수 있으며, 또 『먹다』는 불음도 아니요, 시김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요, 피임도 아니요, 다만 베풀어 이르는 끝이다. 풀이말의 本然의 職責은 베풀어 이르는 데에 있다 할 만하다. 따라 시김끝(먹으라), 불음끝(먹느냐) 들보다는 이 베풀끝(먹다)이 으뜸끝 될만한 性質이 많음도 또

한 지을수 없는 眞理이라 하겠다.

나는 앞에서 으뜸끝 『먹다』는 시간으로 말미암은 변형작용을 입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全然히 시간과 무관계하다고 함은 아니다.

『먹다』가 다른 끝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성질이 없지

아니하지마는, 천연히 시간을 초월하여서 시간과 무관계한것은 아니다. 거기에다 시간이 있다, 그것은 곧 시간의 현재의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먹다』는 곧 먹는 동작을 순간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그 먹는 동작은 상당한 시간을 계속하였을 것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시점(時點)에서 본다면, 아마도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시간적 先後 동시

의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먹다』로만 함은 그것들에는 상관하지 않고, 다만 그 동작을 순간적으로 가리켜 말할 따름이라.

그러나 이 동작을 순간적으로 가리키는 으뜸끝은 보통의 행문에서는 잘 쓰지 아니하고 흔히 쓰는 역사적 사실

을 현재적으로 생생하게 기사할적에, (이것이 역사적 현사범이 되는 것이다) 쓰나니, 이를테면 역사서류에서

九月 二十九日에 訓民正音을 頒布하다.

是日에 天이 大雨하다.

麗兵이 大舉侵入하다.

와 같이 쓰며, 또 일기장 같은 데에서

오늘은 昆盧峯에 오르다.

下午 八時에 돌아오다.

朝 十時에 서울을 떠나다.

와 같이 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과거에 속한것임은 물론이어나와 일기에 오르는 일도 대개는 과거에 속한 일이 된다. 즉 대개는 그 동작을 하면 서 일기를 적는것이 아니요, 그 동작의 뒤에 그 동작을 적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형식을 과거시로 해석하려 함을 본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그 말의 나타내는 일이 과거에 속한 일이라고 해서, 그 말조차 반듯이 과거시라 할수는 없다. 일은 비록 과거에 속하였지만, 그것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 동작을 현재 순간적으로 가리킬수가 있는것이다. 『下午 八時에 돌아오다』라 하면, 그 시각에 돌아오는 동작 그것을 순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요, 결코 『下午 八時에 돌아왔다』라고 하는것과 같은 표현, (같은 사실이기도 하지마는)은 아니다. 이 두가지의 표현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함은 누구든지 녀석이 음미(吟味)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五】

끝으로 『가나다』, 『먹는다』로써 으뜸끝을 삼고져 하는 생각에 대하여 말하겠다. 이 끝이 마침이요, 베품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끝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것이 시간적으로 변형적 가공을 입은것이 분명하다.

받침이 있는 줄기 『가』알에는 『는』이 붙고, 받침이 없는 줄기 『가』알에는 『』이 붙어서, 이케이음(현재 계속)의 뜻을 더한것이다. 우리 말에서 순간적으로 가리키는 이케이(現在)는 잘 쓰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일상 회화에서는 이케이음(現在繼續)을 쓴다. 그러나 많이 쓴다고 해서, 으뜸끝이 될 것은 아니다. 어떻씨(形容詞)에는 이러한 『는』, 『』따위가 붙지 아니하고 음측씨에만 붙는 것인줄 어떻씨의 으뜸끝은 『크다』, 『북다』와 같이 잡고, 음측씨의 으뜸끝은 『간다』, 『먹는다』와 같이 잡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아니하겠지만, 이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는 그 두가지씨를 구별하는데 편리한 보람(特徵)의 하나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 으뜸끝을各具하게 하는표준이 될것은 아니라 하노라. 풀이씨는 다 같이 그 줄기에 씨끝 『다』를 붙이면 그 으뜸끝이 되는것이라 할 것이다.

잡음씨——이다.

어떻씨——크다, 적다.

음측씨——가다, 먹다.

이렇게 이끝이 으뜸끝로서 정당히 다른 모든 끝들을 대표하여서 사권에 오를것이다. (昭和十年 六月 十五日)

鄭世權氏의 厚意

朝鮮語學會의 新會館!

七月十一日 移轉

朝鮮語學會의 新會館

한글 운동이 일어난지 사십여년,

이 깊은 역사를 가진 조선어학회는 여태까지 집 한칸이 없어, 혹은 이집커 집으로 돌아다니며 모이기도 하고, 혹은 남의 집을 빌어가지고 모든 사업을 계속하여오던바, 서울 장산사(獎産社) 사장 정세권(鄭世權)씨가 우리의 뜻을 깊이 알아, 서울 화동(花洞) 일백 이십 구번지 일호에 있는 시가 사천여원의 이층 양옥 한 채를 자진하여 우리회에 제공하시므로, 지난 칠월 십일일에 인연 깊은 수표정(水標町) 사십 이번지 조선교육 협회안에 있던 옛 회관으로부터 화동 새 회관으로 옮기어 왔다.

辭典編纂會, 朝鮮學文庫도

모두 새 會館으로 移轉

조선어학회가 화동 새 회관으로 옮기는 동시에, 연쇄적 관계가 있는 조선어사편찬회와 조선학문고도 다 새 회관으로 옮기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회의 일반 회원은 정세권씨의 두터운 동경에 눈물이 겨우도록 감사한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일반 사회에서도 다 한가지 칭송을 말지 아니하였다. 특히 동아일보의 사설(社說)을 아래에 전재한다.

東亞日報 社說

(第五千二百四十九號)

우리가 우리말에 對하여 等閑하게 지내온것은 明白한 事實이었다. 從來의 우리 教育이라는것은 거의 全部가 漢字教育이었으니, 어느 階級에 우리 言語를 研究하였으랴. 그러므로 常的으로 使用하고 있는러인고로, 말의 發達은 있었지만, 그 말 自體가 文字로 表示되어서 弘布되며 發達될 機會가 거의 없었던고로 地方에 따라서 言語가 區區하며, 그것을 記錄하는 方法도 區區하게 되었었다.

一一

그러나 새 教育이 들어옴으로부터서는 自己네의 말을 研究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것을 認識하게 된 것이었다. 從來의 教育은 말하자면, 거의 全部가 歷史教育이었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었겠으니, 그것은 要項건대 時間的으로 前日의 事蹟을

回想하여 보는 것이었다. 그리하였으나, 新教育에 와서는 空間이 教育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니, 거기에는 歷史外에 地理가 있게 되고, 哲學外에 自然科學과 言語學이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되어서 同時에 生存하여 있는 異他 民族들의 生活를 알게 되며, 그들과 接觸하게 되는 것이 教育의 한 部門으로서 登場하게 되었으니, 他言語를 研究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二

그와 같이 됨으로써 우리 自身의 研究할 必要를 더욱 切實하게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研究는 順調로 나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新教育의 諸機關으로부터 또 等閑視되어 있는 朝鮮語는 別途로 研究하는 機關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語學會는 많지 못한 몇몇 先人들의 研究를 基礎로 삼아가지고, 艱難한 걸음을 걸어 나온 것이다. 그 事業의 意義도 一般社

會에 아직 徹底하지 못한바 있는 때, 物質的 힘이 極히 不足하였으니, 어찌 順成되기를 바랄 수 있었으랴. 그러나 그 會員들의 堅忍不拔한 活動은 漸次 社會의 注意를 喚起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에는 會館조차 없어서 남에게 寄留하였던 것

새 회관이 들어앉은 자리 화동(花洞) 一·二九번지는 옛날 동명으로 「붉은고개」(紅峴), 이왕에 여기가 붉은 꽃으로 草을 알겠고, 대개혁가 김옥관(金玉均)의 옛 집터로 지방은 제일고등 보통학교의 정원이 바루 뒤로 이웃하여 있고, 유명한 안동별궁이 멀지 않게 앞으로 있고, 한글의 공로자 성삼문(成三問)의 옛 집터도 오른쪽으로 가까이 있다.

이었다. 그런데 近日에 와서 鄭世權氏라는 特志家の 厚意로 훌륭한 會館을 가지게 되었으니, 同會의 活動은 이로부터 多大한 便宜를 얻게 될 것이며, 그로써 社會에 끼쳐주는 影響은 朝鮮 文化 全體의 振興에 寄與되는바 많을것을 우리는 믿는바이다.

조선어학회

월례회

유월 여드레날 오후 네시에 서울 수포청 사십 이번지 본회관에서 월례회를 열고, 「한글을 바루 쓰고 배우려는 법」이라는 문제로 이극로씨의 강연이 있는 뒤에 동 여섯시에 폐회하다.

소식

이윤재씨 중앙고등보통학교의 교원을 사면하다.
이윤재씨 유월 사일부터 오일간 권북고창고등보통학교에 열린 한글강습회에 강사로 갔다.
조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 케이득회는 팔월 사일부터 동 구일까지 고양군 승인면 우이동(牛耳洞) 봉황각에서 개최하리라 한다.

巴 里 消 息

우리 조선어학회의 해외유학생으로 작년(잡술) 5월에 조선을 떠나아, 프랑스 서울 파리로 가신 김선기(金善琪)님에게서 회원 최현배님에게 온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는 비록 자신이 로되, 프랑스의 언어학(言語學) 성음학계(聲音學界)의 소식을 대강 말하였음으로 널리 우리 회원 및 독자(讀者)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만하다고 생각하와, 배가 좀 늦었음을 상판하 잠고 여기에 실기로 한것이외다.

감외 스승님께 아칩니다.
 오래동안 문안을 드리지 못하였읍니다. 과히 허물흥지 마십시오. 그동안 안후를 들잡지 못한 요사이 스승님의 지중하신 몸도 강건하옵시며, 조선어학회 여러 어를들도 다 두루 평안하옵신지요? 일일이 문안을 드리지 못하오니 말씀이나 친하여주십시오. 멀리 땅끝과 같은 이곳에 있

어 고국에 계신 여러 어른이 꾸준히 계속하여 노력하시는 소식을 등 아일보를 통하여 볼적마다 스스로 감격에 넘쳐 두주먹을 힘껏 쥐고 멀리 리 고국을 울얼어 생각에 잠깁니다.

치는 그동안 여러가지 익지 못한 새 환경속에서 낯익히고 귀익히기에 힘써 이케는 케법 서투름이 적어진듯합니다. 프랑스말도 좀 늘어 지난 삼월 초하룻날에 파리대학에 입학 하옵고, 청강을 시작하였읍니다. 아직 언어학 강의는 시기가 늦어 듣지 못하오나, 성음학 강의를 들사옵는데, 과히 큰 지장은 없는듯합니다. 아무래도 가을까지는 프랑스말 익히기와 독일어 익히기에 힘쓰려 하옵고, 가을부터 힘껏 새 청신으로 언어학과 성음학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파리대학에와 보니, 과연 감격할 일이 많습니다. 칫재로 언어학제에 커 거성(巨星)으로 치는 쏘쑤르가 강의 를 십년이나 하던 곳도 이곳이요, 인도 구라파 비교언어학을 대성한 페

이메씨가 현재 플래지·더·프랑스에 서 강의를 하옵고 방스리에스가 쏘르본에서 언어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음학 연구소에는 이른 Institute Phonétique 에는 실험성음학의 개조인 라베루셀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근일 이곳에 가서, 프랑스 발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케나 뜻한바를 이루어가지고 가을지 아직 망망하옵나이다. 우선 커의 소식은 이만큼 알려 드립니다. 고국 소식이 터구나 우리 조선어학회의 소식이 갑갑하니, 「한글」과 그밖의 간행물이 있사오면, 수고로우시나 종종 부쳐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이만 주리오니 살피주소서.
 三월 十九日 프랑스 파리 김선기는 올리나이다
 이극로 박사에게
 선생님, 이지음에 안녕하시오며, 한

글
 월

글 운동에 얼마나 골몰하십니까?

지난 해 여름에는 그 더운대도 불구하고 오백여리 원토에 일부러 우리 김천(金泉)까지 오쳐서, 힘껏 한글을 가르켜 주시와 많은 개침을 얻었사오며,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커피는 지난해에 선생님에게 강습을 받은자로써 김천읍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산촌에 살고 조금도 아는 것이 없을 망청, 외부의 자극을 받고, 또 느낀 바 있어 친부더 한글의 취미를 두고 한글에 관한 책도 사보고 삼사 년동안 김천에서 열린 한글강습회에 도가서 청성껏 듣고 배웠읍니다.

지난 여름 강습회에서 이 선생님 말씀이 「한글은 우리의 보배다」, 「한글을 살려야 우리가 산다」, 「이 강습회는 사범학교다」라고들 하셨지요. 커피는 이 말씀을 영원히 잊을수 없읍니다. 「아아, 과연 그렇다」라고 느꼈읍니다. 그리하여 커피도 선생님들의 뜻을 만분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그럴커피 얻어 그 짧은 지식을 가

지고나마 아는대로는 이 산촌에서, 몇번이나 가르켜보았읍니다. 이곳은 책살 돈조차 없는 뼈마른 산촌이므로, 처면없이도 몇번이나 동아일보사로 조선일보사로 「한글원본」 「한글 공부」같은 책을 동냥해다가 해마다 농한기를 이용하고 남의 집 사랑을 근근이 빌려서 사경사경으로 농민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켜 나왔읍니다. 그중에는 한글이 무인지도 모르는이도 있었고, 또 「우리 조선진서(眞書 即 漢文)는 나뻐두고 그까진 언내(諺文)는 왜?」하고 비웃는이도 있어서 처음에는 도리어 애절해가면서, 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켜 온것이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 없이 한글은 참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문의 우리 조선진서가 아닌것을 알고, 한글이 언내가 아니요, 당당한 우리 조선글이란것을 깨닫고, 또 좋은 글이란것을 알고, 세종대왕까지 알게 되었읍니다. 한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는 못 할망청, 청신부더 개량되었으며, 한글

에 재미를 붙여서, 펴도 한글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마을 소년들은 모아앉으면, 한글서취(書取)하기가 일어요, 간간이 그것을 가지고 꿰으려 읍니다. 커피는 이것을 펴도 기쁘게 생각하며, 달달이 한글 잡지가 오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즐낵다. 또 더욱이 기쁜것은 한글을 가르키는 바람에 마을사람들이 마음내쳐서 올 가을에는 야학집을 짓는다고 수십원 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차츰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에 친심천력 노력하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이런 사경도 펴 알고 싶을것이므로 이와같이 알으켜 드리 는것입니다. 참으로 오래동안 우리들의 문화가 쇠약해 오든 지음에 조선어학회가 생기고 이 학회 여러 선생님들이 총동원하시와 우리 문화를 갱생시키기에 희생적 노력을 해오는 것은 우리 조선에 큰 행복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한글을 살리고 조선 을 살리는 날이 하루바삐 있어주시 음소서. 오월 일일 김천 이근청 올림

물음과 대답

- 一、물음은 한글에 관한 것에만 그침.
- 一、물음은 한번에 셋 이상은 하지 말일.
- 一、책 가운데 있는 것이면 그 책 이름 및 몇째 페이지인 것을 꼭꼭히 쓰일.

【물음】 一、「히다(白)」、「가로되」、「가운데」、「...던」들을 「히다」、「가로되」、「...던」이로 쓰지 않음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첫놈이면 구별하여 발음하겠지만, 발음으로 부리는 그리 정확히 구별하여 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역사적 철법입니까.

二、셋집(賃價)입니까? 세수집입니까? 중간인은 어떤 경우에 씁니까.

三、조신말의 소리갈(音聲學)의 좋은 책을 알려주세요.

(스, 스, 하)

【대답】 一、「히다? 히다?」는 마춤법 통안안에는 아직 어느편으로나 작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말

에는 분명히 「히다」로 발음되니, 그것이 의례히 표준말이 될수 있으나, 주시경 선생의 쓴 책과 김두봉님과 최현배님의 쓴 말본에는 모두 「히다」로 썼읍니다. 이것은 권조신적으로 치면 「히다」보다 「히다」로 발음하는 곳이 많으니 다수를 표준삼은듯 합니다. 「가로되」、「가운데」、「...던」으로 쓰는 것은 우리말의 소리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다른 근거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운데」가 「가운데」로 가깝게 발음되나 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것은 다만 역사적 철법을 좇음이고, 그 밖에는 다 정확한 발음에 말미암읍니다. 요

새들 퀘 「가로대」、「...던」이로 쓰는 가 하면, 대는 「하건대」같은 말의 끝과 서로 공통성이 있으며, 「다」인 「하느」 같은 말의 끝과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이유로 약간의 발음의 차이는 있지마는 그렇게 쓰는 것인가 합니다. 그것도 무론 좋은 뜻이나, 말마다 다 그와 같이 간련을 시키면

너무 범의 엄매며 자연의 어음을 손상하게 하는 일도 없지 않겠으므로, 이러한 말들은 그 자치를 따루 독립하여 발음하는대로만 적는 것이 도리어 좋다는 것입니다.

二、「셋집」이 좋습니다. 마춤법 통일안 제 三〇항을 참고하십시오. 중간인은 전혀 쓰지 않기로 되었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벌써 여러번 한글에 논문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읍니다.

三、소리갈의 좋은 책은 최현배님의 지은 「우리말본 첫재매」(경가구십권, 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부 발행)가 좋습니다. 또 지금 인쇄중에 있는 최현배님 지은 「우리말본」은 먼저 지은것을 자세히 해석하여 강의체로 되었으니, 이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별로 없으며, 요새 조선음성학회(朝鮮音聲學會)가 새로 발기되었으니, 장차 거기에서 연구하기에 좋은 책들이 나올것을 기대합니다. (이운재)

【물음】 다음의 표준어를 가르쳐 주

시오.

그리고, 그리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김치, 김채. 씻으려, 시츠며(洗), 불어지다, 불거지다(紅), 뽕아가다, 따라가다. 스리사리, 슬이살이, 두부찌개, 두부찌개. 감감, 컴컴. 아려고, 알려고. 있것만, 있건만. 거문옷, 검은옷. 떼오르다, 떼올이다. 네, 비, 예(대답). 가자미, 가재미. 천엽, 천엽, 천넵(소의내장). 어찌면, 어찌면. 오나라, 오나라. 고은 꽃, 고은꽃. 사라지다, 살아지다. 일감, 일감(일의 재로). 갈매기, 갈매기. 어즈럽다, 어지럽다. 마춤내, 마침내. (池鳳旭)

【대답】 표준어는 지금 조선어학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고」와 「감감, 컴컴」은 각각 말의 뜻이 다르므로 표준어로 써 논할 것이 아니며, 그 밖의 것은 뒤에 표준어사정(査定)에 따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윤재)

【물음】 一, 「갸, 뇨, 리, 래, 래, 리, 궤, 궤, 궤, 미, 비, 쑈, 쑈」 이것의 읽는법을 가르쳐주시오

二, 「외, 왜」의 발음 분간을 가르쳐주시오. (碧潼 張芝用)

【대답】 一, 이것은 대개 두개의 자모(子母)가 어울려서 된 것이며 항상 끝소리(바침)로만 쓰이는 것이므로, 따두이 이름이 있을 까닭이 없고, 다만 글자된 그대로를 이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냐(니은지읒), 뇨(니은하음), 리(리을기역), 래(리을미음), 래(리을비음), 리(리을시읏), 리(리을히읏), 리(리을피읏), 지(리을히읏), 미(미음기역), 비(비음시읏), 쑈(기역시읏)이라 하는 것이며, ㄱ, ㅋ, ㆁ 들은 첫소리와 끝소리에 두루쓰이

고 이미 작성한 이름이 있으니, 그에 의지하여 「쌍기역, 쌍시읏」이라 할 것입니다.

二, 「외, 왜」는 아주 다른 소리입니다. 「외」는 우리말소리에 두가지로 내는데, 홀소리로는 혀의 자리를 「개」와 같이 혀의 앞을 높이고 입술을 오무려 앞으로 내밀고 한가지 팔로 내는 소리요, 거듭소리로는 한 소리덩이(音節)를 이루는데 먼저 입술을 오무리었다가 벌리면서 그 다음에 홀소리(母音) 「개」를 내는 것입니다. (왜)는 다만 한 소리덩이인데 먼저 입술을 오무리었다가 열면서 그 다음에 홀소리 「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북도 지방에서는 「외, 왜」를 꼭 같이 소리내는대가 있습니다. 그 소리냄에 다른 점을 자세히 살펴서 서로 섞이지 아니하게 바꾸 잡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윤재)

한글 연구 圖書 解題 (5) 方鍾鉉

楞嚴經 十冊

먼저 이 책의 이름을 그 卷首에 쇠워있는데로 적어본다면, 길게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라고 하여, 좀해서는 읽기조차 어렵게 記錄되어 있고, 또 책장 모에는 장마다 楞嚴經 卷「一」이 라고 明示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一般으로는 다만 楞嚴經 諺解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이 책이 불리워지고 있으므로, 우에서 表示한 것과 같은 그런 긴 이름은 아마 기억하는이조차 드물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 한문대기에 쇠워 있는 줄수로 보면 한장이 十八行이요, 한 硯대기가 九行으로 整列되어 있으니, 다만 諺吐나 諺解의 部分에 限하여서 마는 이 한줄간 안이다. 다시 두줄별로 나누어서 쓰기로 되어 있고, 또 그 한줄에 조여 쓴 글은 十七字를 가지고 一行으로 定하여 있는 것을 알수가 있다.

이책이 刊行된 年代는 그 卷首에 있는 桂陽君瓊의 「進首楞嚴經箋」의 맨나중에 天順六年 八月 二十一日 都提調 翰忠衛同德佐翼功臣桂陽君臣瓊箋이라고 記載되어 있는 것을 보아 天順 六年 即 世祖 七年 壬午(西一四六二)에 刊行된것이라고 認定할수가 있고, 또 御譯이라고

한것으로 보아서든지 이 책은 世祖가 親히 關係하여 諺解한것임을 알수 있는 刊經都賢관인것이다.

이책이 책에서 使用한 諺文의 部分을 보면, 訓民正音의 所示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것을 알수 있다. 아래 그 例를 들어 이 部分의 內容을 表示하고저 한다.

- | | | | |
|----|---|--------------------|-----------|
| 1 | 、 | 師송子宗 | 生의根マ。 |
| 2 | ○ | 四송子宗 | 所송果광 |
| 3 | ○ | 嚴엄王왕 | 五송月월 |
| 4 | ㅎ | 스스히니(師) | 이에(於此) |
| | | 一일億억 | 別별說說 |
| | | 비홍사론(學者) | 얼큐메잇니(在纏) |
| 5 | △ | 忍忍辱辱 | 二의日日 |
| | | 겨슬(冬) | 가슬(秋) |
| 6 | 뎡 | 後淸 | 道淸 |
| 7 | 뎡 | 지벼(礫) | ㅎ스바 |
| 8 | ㅎ | 드리혀몰(吸) | 니르혀(起) |
| 9 | ㅇ | 리온(纏) | |
| 10 | ㄴ | 일나니라(失) | |
| 11 | ㅈ | 조좌와(隨) | |
| 12 | ㄷ | 本本明明을아을떠어늘(識本明이어늘) | |
| 13 | ㅉ | 뜯마시(鹹味) | 뜯야(裂) |
| 14 | ㅊ | 뻘(箴) | 뻘(蒸) |

15 明 明(時) 明(淪)

16 所有格的 符號 王왕사아습

17 들바침 옮김(轉) 函건마문(倂)

18 副詞 두려이불가원하스르차(圓明洞達)

19 母音調和, 여들본, 아호본(八者는 九者는)

20 點則 카매(去)

내가 본 現在 있는 이 經으로는 去年 朝鮮語學會

主催인 朝鮮語學圖書展覽會에 出品된 中央佛敎專門學校

所藏本 全秩과 또 京城帝大圖書館 所藏本 全秩(但 이

책에는 進首楞嚴經箋의 뒷머리 두장이 落되고 맨끝에

部分만 남아있다)과의 두벌이 있을뿐이다. 모두 紙質

도 좋거니와, 板刻도 훌륭하야 刊經都監板의 本色이 確

然한 貴重本이다.

끝으로 每책의 張數를 明記하야 散秩을 求하시는분

의 便宜에 供하여볼가 한다.

卷一 自一——至壹百拾三

卷二 自一——至壹百七

卷三 自一——至壹百拾七

卷四 自一——至壹百三十二

卷五 自一——至八十八

卷六 自一——至壹百十四

卷七 自一——至九十三

卷八 自一——至壹百三十九

卷九 自一——至壹百二十一

卷十 自一——九十三

(우에 表示된 張數는 本文만인것이므로, 이 밖에 音

釋의 部로 한장 혹 두장씩 더 매卷에 附加되어 있

는것을 알아야 한다)

特 告

한글 統一의 途程에, 一方으로 沮害를 敢行하는 少數 反對 分子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主張하는가? 어떠한 術策을 쓰는가? 그 肺肝을 들여다보듯 알고저 하시는분은 本會로 통기 만 하시면 책 한권(本誌 三月號)을 送부하겠읍니다.

朝鮮語學會

독자의 소리

이欄에는 讀者 諸氏로서 어떠한 意見이든지 다 發表할수 있습니다. 提議나 反論이나 무엇이든지 써 보내시오.

너를 더 썼으면

金谷 李 錫 麟

한문에 놀리고 천대를 받던 한글이 조선어학회 여러 선생님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완성되어 우리 겨레의 길잡이가 되며 양식이 되매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커의 늘 느끼는 바를 다 음에 적어 참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별, 실어치, 적어치, 천대, 건물, 성명, 성, 정(姓)

으로 씌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뜰 알 아보기 어렵지만, 너를 쓰면

실어치(不熟) 벌(罰) 적어치(記)
 실어치(悲) 벌(蜂) 적어치(少)
 천대(千代) 건물(팬이) 성명(聲明)
 천대(賤待) 건물(建物) 성명(姓名)
 정(丁) 정(鄭)

으로 되고, 벽(廚) 과지(乞人) 병(鳥名) 열(精神) 영넝이들로 쓰면, 음리에도 맞고 뜻도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ㅈ(一)와 ㅊ(를) ㅈ(ㅈ)와 ㅊ(로) 알기 쉬우니 모양을 좀 달리 하여서라도 갱(鏡) 명(命) 병(病) 별(星) 로 쓰면 정(京) 명(明) 병(瓶) 별(別)과 구별을 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이시어! 변변중지 못 하나마 우리글을 좋게 만들자는 생각으로 내어놓는것이니, 널리 사랑하시고 내내 한글을 애독하고 한글 통일 보급에 함께 힘써 주심을 바랍니다.

고산 구곡가 (울곡)

고산(高山) 구곡담(九曲潭)을 사람이 모 르더니, 추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일곡은 어디메오, 관악(冠嶽)에 해 비 친다. 평무(平蕪)에 내 건으니, 원산이 그림이라, 종간(松間)에 녹촌(綠樽)을 놓고, 벗 오는냥 보노라.

이곡은 어디메오, 화암(花岩)에 춘만(春 晚)을 거라,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하리.

삼곡은 어디메오, 취병(翠屏)이 잎 퍼져 라. 녹수(綠樹)에 춘조(春鳥)는 상하기음(上下其音)하는데,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애라.

사곡은 어디메오, 송애(松崖)에 해 넘는다. 담심암명(潭心巖影)은 온갖빛이 잡혔 세라, 임천(林泉)이 깊도록 좋으니, 흥을 겨워 하노라.

오곡은 어디메오, 은병(隱屏)이 보기 좋다. 수변(水邊) 정자(精舍)는 소쇄함도 가이없다. 이중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朝鮮語學圖書展覽會

平壤에서開催

평양 조선어문연구회(朝鮮語文硏究會)와 승진조선어학연구실(崇專朝鮮語學硏究室)의 주최로 지난 오월 십팔일부터 사흘동안 평양 서문밖 마포삼열기념관에서 조선어학 도서진람회를 열었는데, 세상에 서 보기 드문 진귀한 서적이 많이 진렬되었으며, 이것이 평양에서는 처음 열린것만큼 크게 인기 집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케 그 진람회에 출품되었던 고서의 부분만 아래에 소개한다.

一、總部

- 1 世宗御製訓民正音 一冊
 - 2 訓民正音(影印本) 二種
 - 3 訓民正音韻解(謄寫本) 一冊
 - 4 校刊諺文志(近刊本) 一冊
 - 5 雅言覺非(近刊本) 一冊
- 二、諺解類
- (가) 儒書
- 1 周易諺解 零本一冊

- 2 周易諺解 五冊
 - 3 禮記大文諺讀 一冊
 - 4 禮記集說大全 零本二冊
 - 5 書傳諺解 四冊
 - 6 書傳正音 零本一冊
 - 7 詩傳諺解 五冊
 - 8 詩傳大文 一冊
 - 9 孟子諺解 七冊
 - 10 孟子栗谷先生諺解 一冊
 - 11 孟子正音 一冊
 - 12 孟子諺解 零本一冊
 - 13 中庸諺解(年代最古) 一冊
 - 14 中庸諺解 一冊
 - 15 大學諺解 一冊
 - 16 孝經諺解 一冊
 - 17 小學諺解 一冊
- (나) 佛書
- 1 妙法蓮華經諺解 十四冊
 - 2 妙法蓮華經諺解 一冊(卷四)
 - 3 六祖法寶壇經諺解 一冊
 - 4 圓覺經諺解 十冊
 - 5 圓覺經諺解 零本一冊
 - 6 圓覺經諺解(活字本) 零本一冊
 - 7 金剛諺解 二冊
 - 8 月印釋譜 二冊(卷一、二)

- 9 月印釋譜 二冊(卷廿)
- 10 佛頂心陀羅尼經 一冊
- 11 佛說阿彌陀經 一冊
- 12 法語 一冊
- 13 法語 一冊
- 14 蒙山和尚法語略錄 一冊
- 15 四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 一冊
- 16 靈驗略抄 一冊
- 17 禪宗永嘉集 一冊
- 18 眞言集 一冊
- 19 七大萬法 一冊
- 20 禪宗龜鑑 二冊
- 21 水月道場夢中間答 一冊
- 22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一冊
- 23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一冊
- 24 千字經、七星經 合部一冊
- 25 十王經 一冊
- 26 眞言集(妙香山刊) 一冊
- 27 眞言集(異前) 一冊
- 28 普勸念佛文 一冊
- 29 天他八陽神呪經 合部二冊
- 30 眞言集(萬淵寺刊) 一冊
- 31 眞言集(雙溪寺刊) 一冊
- 32 持經靈驗傳 一冊
- 33 妙法蓮華經 一冊

- 34 金剛般若波羅密經 一冊
- 35 新編普勸文 一冊
- 36 석가모니불일록 一冊
- 37 육조대사법보단경대의약론 一冊

(다) 道書

- 1 句解南華真經 五冊
- 2 敬信錄諺解 一冊
- 3 太上感應篇圖說 五冊
- 4 關聖帝明聖經 一冊
- 5 功過經 一冊
- 6 五倫經 一冊
- 7 過化存神 一冊
- 8 五군령적지 一冊

三、文學類

- 1 龍飛御天歌 一冊
- 2 杜詩諺解 十八冊
- 3 杜詩諺解(寫本) 一冊
- 4 百聯抄解(寫本) 一冊
- 5 陶山歌詞 一冊
- 6 蘆溪集 一冊(卷三)
- 7 海東歌謠(寫本) 一冊
- 8 言永(寫本) 一冊
- 9 홍의수호전(寫本) 一冊
- 10 五대성전 一冊

- 11 근본순항전(近刊本) 一冊
- 12 大東風雅(近刊本) 一冊

四、譯學類

- 1 重刊捷解新語 一冊(十二卷中)
- 2 蒙語類解 一冊
- 3 朴通事新釋諺解 一冊
- 4 同文類解 一冊
- 5 譯語類解 一冊
- 6 重刊老乞大諺解 一冊
- 7 重刊老乞大諺解 一冊
- 8 華音啓蒙諺解 一冊
- 9 華語類抄 一冊
- 10 華語類抄 一冊

五、雜書

- 1 馬經諺解 一冊
- 2 樂學軌範(影印本) 三冊
- 3 上院寺勸善文法牒(寫本) 一冊
- 4 心經附注釋疑 一冊
- 5 御製常訓諺解 一冊
- 6 五倫行實圖 一冊
- 7 痘瘡經驗方 一冊
- 8 東醫寶鑑湯液篇 一冊
- 9 訂正東醫寶鑑湯液篇 三冊

- 10 十九史略諺解 一冊

- 11 新刊增補三略 一冊

- 12 增修無冤錄諺解 二冊

- 13 濟衆新編 一冊

- 14 兵學指南 一冊

- 15 諺解圖像童蒙先習 一冊

- 16 童蒙先習 一冊

- 17 字恤典則 一冊

- 18 論中外大小臣庶綸音 一冊

- 19 斥邪綸音 二冊

- 20 續明義錄諺解 一冊

- 21 金氏世孝讚圖 一冊

- 22 直星行年法(寫本) 一冊

- 23 農家集成(寫本) 一冊

- 24 經驗方(寫本) 一冊

- 25 重訂方藥合編 一冊

- 26 小學讀本 一冊

- 27 鄉藥探取月令(謄寫本) 一冊

- 28 耳談續纂 一冊

六、字書、韻書、物名類

- 1 三韻通考 一冊
- 2 增補三韻通考 一冊
- 3 訓蒙字會(近刊本) 一冊
- 4 石峯千字文 一冊

5 千字文	一冊
6 類合	一冊
7 詳解千字文	一冊
8 三韻聲彙	三冊
9 華東正音通釋	一冊
10 奎章全韻	一冊
11 語錄解	一冊
12 語錄總覽(近刊本)	二冊
13 蒙喻篇	一冊
14 日用備考(寫本)	一冊
15 全韻玉篇	二冊
16 新訂全韻玉篇	二冊

七、吏文類

1 吏讀便覽(寫本)	一冊
2 吏文雜例(寫本)	一冊
3 行文一通(寫本)	一冊
4 行文抄(寫本)	一冊
5 題音(寫本)	一冊
6 儒胥必知	一冊
7 新式儒胥必知	一冊

八、歐文諸書

1 韓佛字典	一冊
--------	----

2 韓英字典(元杜尤著)	一冊
3 韓英字典(奇一著)	一冊
4 法韓字典	一冊
5 英韓字典	一冊
6 日用朝鮮語辭典	一冊
7 三千字典	一冊
8 英鮮字典	一冊
9 英鮮英字典	一冊
(4) 文法 會話 其他	
1 佛文韓語文典	一冊
2 朝鮮文字音聲學	一冊
3 朝鮮語要覽	一冊
4 朝鮮語句要覽	一冊
5 朝鮮語百句集	一冊
6 朝鮮語五十要項	一冊
7 鮮英文法	一冊
8 比較文法	一冊
9 語句本位朝鮮語	一冊
10 辭課指南	一冊
11 朝鮮語英語文法	一冊
12 同上續篇	一冊
13 朝鮮語入門	一冊
14 朝鮮語學起源	一冊
15 朝鮮의 鳥類	一冊

青年常識叢書	
朝鮮歷史	全定價二十錢
西洋歷史	全定價二十錢
世界地理	全定價二十錢
政治篇	全定價二十錢
經濟篇	全定價二十錢
法律篇	全定價二十錢
哲學概論	全定價二十錢
社會學	全定價二十錢
人體生理	全定價二十錢
家庭衛生	全定價二十錢
新體書翰文	全定價二十錢
朝鮮語文法	全定價二十錢
朝鮮語綴字法	全定價二十錢
物理	全定價二十錢
化學商業	全定價二十錢

外來語 表記法에 對하야

— 六月二十九日 朝鮮音聲學會 講演 要旨 —

李克魯

우리가 재작년 한글날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맞춤법 통일안만 가지고는 우리가 쓰는 말의 낱치의 통일안이 못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말하거나 글쓸 때에 외국 고유명사나 외래어를 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아직 여기에 대하여 통일안이 완성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 六章 외래어 표기에 대한 것을 본다면 태도만은 작정이 되어 있다.

(一)、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二)、표음주의(表音主義)를 취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통일안의 태도를 풀이하여 말하자면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특수한 음운으로 조직된 것이다. 다른 민족언어의 특수한 음운을 적기 위하여, 새 문자나 새 부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 놓았자 일반은 바로 읽지도 못하고, 또 그 소리를 바로 듣지도 못한다. 다만 눈으로 보아서 다른 부호가 붙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도리어 귀찮은 점이 많을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을 보아도 외래어를

적기 위하여 새 문자나 새 부호를 창작한 예가 없다. 일반은 외국어의 특수한 음운을 배울 필요도 없고, 또 배울 능력도 없다. 자기 모어(母語)에 있는 음운이 아니면, 특별히 그 언어교육을 받기 전에는 그 소리만 잘못 낼뿐 아니라, 또 바로 듣지도 못한다. 그 사실은 민족심리학(民族心理學)에서 증명하는 바이다.

자연성(自然聲)을 듣는 실례를 들면, 버섯의 소리를 중국사람은 「부꾸」로, 일본사람은 「호게교」로, 독일사람은 「쿠쿠쿠」로, 조선사람은 「버섯」으로 듣는다. 이 케 외국 어음을 듣는 우리의 청각(聽覺)을 볼지라도, 영어의 고맙다는 말을 「맹큐」로 듣는지도 있고, 혹은 「생큐」로 듣는지도 있다. 독일의 한 땅의 들을 혹은 「살」로 혹은 「잘」로 듣는다. 그러나 다른 민족의 소리를 그대로 바로 들어서 적는다는 것은 민을 수 없는 일이다.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오는 때에는 우리화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어느 민족의 말이나 외래어를 자기화(自己化)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사람은 아라사라고 쓰는 것을 「아국」이라고 쓰며, 일본사람은 「로시아」라고 쓰는 것을 「로국」이라고도 쓴다. 일본을 영국사람은 「재팬」이라고 하고, 독일사람은 「야관」이라 한다. 중국을 영국사람은 「취이나」라 하고, 독일사람은 「시나」라 한다. 쇠를 영국사람은 「세울」이라 하고, 독일사람은 「쇠울」이라 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 자기화 아닌 것이 없다.

普通學校 朝鮮語學習 指導案

이 指導案은 지금으로부터 三年 前 原州公立普通學校에 敍任 몇분 이 特別히 朝鮮語科 教授 研究에 用力하여 그 擔任한 學級에 대하여 各기 指導案을 만들어 研究의 資料를 삼았던 것이다. 이제 여기 에 몇분의 것만 실어서 한 參考에 供하고저 한다.

第二學年

朝鮮語 學習 指導案

李 先 東

一、教材 三十一 韓石峯 (卷二)

二、要旨 이 教材는 歷史的 教材 이다. 「어머니의」 그 자식을 생각 하는 마음, 애쓰는 情愫는 이러 하다는 곳에 느끼게 하며, 자식 된자 그 몸을 돌아보아 親恩을 생각할 때, 「자식이 가질 心情은 또한 이러해야만 될 것이다」라는

뜻 아래에서 이 教材를 修身的 教材로 보는 것도 尙할 것이며, 따라서 教育的 效果도 많을 줄 안 다.

三、教材觀 구차한 살림——아버지

없는 아들——외아들——홀어미——
教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小 說的 줄기(레마)를 뽑아내어 그 들의 心情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밖에 없는——泰山같이 믿고 있는 외아들, 金枝玉葉같이 길러 내어 훌륭한 人物을 만들어 보 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心情일 것이 다. 그리고 한분밖에 아니 계신 어머니 구차한 살림살이에 시달 리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 을 받들어 봉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들의 마음일 것이다. 石峯과 그 의 어머니——이 아들을 생각하 는 어머니 마음이 어머니를 생 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글의 字 字句句마다 이 거룩한 心情이 表 現되어 있다.

어린 아들을 十年이라는 긴 동 안을 外方에 보내는 어머니 마 음은 얼마나 애초려웠으며, 구차 한 살림에 고생살이하는 어머니 를 남겨놓고 떠나는 마음, 얼 마나 비감하였으랴! 어머니는 너 하나만 잘 된다며는 十年 아니 라 二十年이라도 참으마 아무조 록 몸 든든히 공부 잘 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아들은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成功 하는 날 하루바삐 돌아와서 奉養 하겠소이다」이렇게 오고가는 한 마디 말에 애초려움도 비감한 것도 참을수 있는 거룩한 愛情, 말의 힘이 넘쳐있었었다.

꽃 피는 봄, 달 밝은 가을, 깊은 철속에서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石峯, 그리고 아들을 생각 하는 어머니 그 마음인들 오작 이나 애달팠으랴! 石峯은 참다 못하여 겨우 十年의 반도 못되 는 四年後에 집으로 달려왔다.

늘어지신 어머니, 長成한 아들이
시오 만났을 때에, 그 반가운 마
음 어땀하였을까? 기쁨의 눈물
도 흘렸으리라. 그러나 遠慮 깊은
어머니는 一時 참가 어려운 愛情
에 끌리어 아들의 前程을 헛되
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게
마음 약한 女性, 아니 母性은 아
니었다.

「아니 네가 十年 작정하고 갔었
는데, 왜 벌써 왔느냐」 오, 이 한
마디 말씀, 慈母에 嚴이 있다는
말이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니었던
가. 나는 여기에서 三遷之教의 孟
母를 聯想하다. 孟母는 乍던 明
軸을 베었다고 한다면, 石峯의
어머니는 떡을 썰어보였다. 어둠
속에서 芻 芻과 쓴 글씨, 前者
는 고생되는 芻장사였었다. 마
는 아들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
나 熟練된 솜씨였으며, 後者는 年
數를 못다 채운 未熟한 글씨였다.
率直하고도 참된 이 敎訓, 귀염

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어린이
敎養의 全部가 아니다. 「귀여운
아들은 먼 길을 보내라」는 自古
로 있는 말이 아니었던가?

영리하고도 착한 石峯은 마침
내 自己의 不察을 뒤우치고 熱
誠이 不足하였음을 깨달아 다시
절도 修學의 길을 밟았다. 乃子
石峯이 名筆로 그 이름이 後世에
傳하여 나려온 것은 이러한 거룩
하고도 눈물겨운 母子愛의 融合
의 所産이다. 母性愛! 참으로 그
것은 모든 愛의 根源이다. 내 自
身이 흠어머님 무릎 밑에서 자라
난만큼 母性愛의 絶對的임을 切
實히 느끼고 있는바이며, 石峯母
의 愛中の 嚴이 있는 爲子之心
과 그 態度는 再三 머리가 숙
으러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點으로 보면, 要旨에 섰
거니와, 나는 本敎材를 修身的敎
材로 重히 보는바이다. 石峯의 名
筆 되었다는 歷史的 事實도 불

룬 큰 자랑거리다 하지마는 그
같이 成功한 裏面에는 母子의 眞
情에서 찾아볼수 있는 動機와 徑
路가 있었다는 것을 더 알리고 싶
으며, 兒童 自身の 生活를 돌아
보아 깊이 생각하고저 한다.

四、敎材 研究 (其一)

石峯: 韓漢古今聖賢錄 參照.
年代 中宗 三十八年 癸未 生,
宣祖 三十八年 乙巳 卒。享年 六
十三歲。

石峯은 堂號요, 姓은 韓氏, 名
은 漢이며, 字는 景洪이라 하며
本貫은 淸州인데, 松京에서 出生.
父母가 石峯을 낳고, 그 將來를
問卜하였더니, (玉兔生東, 洛陽紙
價騰貴, 此孩必善書有名) (옥토끼
가 동방에 나니, 서울에 종이 값
이 올랐도다. 이 아이가 반듯이
글씨 잘 쓰기로 유명하리라) 이라
하였다. 뒤에 벼슬은 郡守까지 지
났다. 임금께서 「醉裏乾坤, 筆奪造
化」란 여덟자를 親書하시 下賜하

신 일이 있었다.

이러한 逸話가 있다. 젊은 때 外方에 가서 公부할새 꿈에, 王右軍(右軍은 官職名, 곧 王羲之)이 두번이나 나타나 글 쓴 것을 받았다. 그후부터 글씨 쓸 때마다 神助가 있어서 잘되어 드디어 名筆이 되었다.

그 始祖는 高麗 太祖時 蘭이란 功臣이며 그후 世孫으로는 李朝 端宗時 首陽大君(世祖)을 도와 뒤에 領議政까지 된 韓明澮가 있다. 明澮가 開城人임을 보아 무슨 因緣이 있는듯도싶다.

教材 研究 (其二)

(一) 글자 모양 韓石峯이 어려서부터 片母의 敎訓을 받아서 修學한 結果 世上에 떨치는 名筆이 되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普通文과 對話文으로 썼으며, 用語上으로는 尊敬語體로 된 글이다.

(二) 節

第一節: 發端 (시초) - 開城 時代 三百五十年前

第二節: 十年 작정하고 철에 가서 公부하는 石峯과 떡장사를 하면서 그 뒤를 대어주는 그 母.

第三節: 어머니가 보고싶은 생 각 금치못하여 四五年 後에 집으로 온 것.

第四節: 石峯과 그의 어머니와의 對面과 對話.

第五節: 어머니가 石峯의 筆力을 시험해 보신 것.

第六節: 어머니의 訓戒하시는 말씀.

第七節: 石峯이 名筆이 되었다.

(二) 語句

○ 젊었을 때 韓石峯이 어렸을 때. ○ 작정하고 韓石峯이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 구차함으로 韓石峯이 가난함으로. ○ 그 뒤를 대어주어 韓石峯이 돈 드는 것을 보내주어. ○ 한(約)

○ 대개 얼마쯤. ○ 뵈고 싶고 韓石峯이 보고 싶다는 뜻이니 존경하는 말.

○ 봉양 韓石峯이 모시고 받들어 드린다는 말. ○ 이만하야도 韓石峯이 이만큼만 하여도 더 하지 아니하여도. ○ 녀

○ 즉시 韓石峯이 곧, 금방. ○ 본즉 韓石峯이 보니까. ○ 간격 韓石峯이 글자와 글자, 획과 획 사이. ○ 고로지 못하야 韓石峯이 한결갈지 못하여. ○ 쓰겠니 韓石峯이 (反語) 되겠니, 소용없다는 말. ○ 一心으로 韓石峯이 똑 한가지 마음으로. ○ 채우고 韓石峯이 수요 모자라는 것을 보려고. ○ 마침내 韓石峯이 나중에. ○世上에 韓石峯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世界, 온천하에. ○ 뛰어난 韓石峯이 훌륭한, 이름난, (出衆). ○ 名筆 韓石峯이 글씨 잘 쓰는 것, 轉하여 글씨 잘 쓰는 사람.

(三) 新出字

韓石峯 (옛날나) 峯 (산이 우뚝)

韓石峯 (타이름) 峯 (산이 우뚝)

韓石峯 (산이 우뚝)

韓石峯 (산이 우뚝)

한 글

바루 잡아 쓰기

힘 익

옆에 쓴 것. 이 바른 것. 이를 꼭 때 자매자 맞 후어서 보 시오.

한 사람이 땅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完結)

五 틀스토이 지음

이여 인케 다시난는 학본이 아모리 하
 로부도 것잡지 못할줄 아랴다. 머리
 로브러 윈 몸에 진쌈이 부적부적
 난다. 손발이 다 감각이 없이 된
 다. 마치 무엇에 잘닌것 같다. 윈
 몸이 다 생채기다.
 그래서 학본이 자기가 자기의 발

을 움겨 놓는 안인지 무엇이 무
 엇인지 아조 모른다. 좋은
 잠간이라도 쉬었스면 조홀러이나,
 쉬기난 차치하고 죽기 괴쓰고 거결
 러가도 해지기 천에 처산에를 다
 달을 다들지 못 다다들지 위태롭다
 다들지 못 다다들지 위태롭다
 래양의게 처난 학본을 위하야 조곰
 도 기다리지 안이한다. 점점 아태
 로만 내려간다.
 「흥, 흥, 이러하니 이를 엇지하면
 조홀외. 랑패하얏군. 너머 멀리 나
 갓엇구 갓엇고나..... 흥, 흥, 밋지 못하면
 엇지하나.....」
 하면서 학본이 산이며 래양을 홀
 겨보나, 산까지 난는 아즉도 멀리 나
 맛고 래양은 임의 디평천에 쉼려
 지려한다.

학본이 더욱 초초해한다. 그러나
 래양은 작고작고 쉼려가니, 하는
 수업서 억개에 메엿던 짐을 말끔
 벗어버리고 광이 한아만 들고 할
 버서버리고 몸을 가늠얏게 하얏
 수잇난데까지 몸을 가늠얏게 하얏
 다.
 「흥, 으, 아즉도 처러게 많이 나남
 맛나. 이래 처난 여간해 처 산까지 갈
 것 같지 안이하다. 흥 해지기 천까
 지 산까지 못 갈지도 몰으겟다」
 생각한즉 랑슈를 등떨미에 퍼분
 듯 떨린다. 그래서 또 또 달음질하얏
 다. 진쌈이 속옷을 불초를 만드러
 다. 입은 침 한덤 없이 말나붓게
 되얏다. 가삼은 라고 명문은 두근
 거리난데, 다리난는 움치려들어 나가
 지를 안이한다.

학본이 ^어이래 ^어저난 ^어아니 ^어되겠다 ^어생각하지 ^어안임이 ^어안이나, ^어피곤으로 ^어죽을 ^어디경이다.
 그도 ^어무론 ^어죽기를 ^어싫어 ^어시려한다. ^어그래도 ^어정론을 ^어버리는 ^어못한다. ^어만일 ^어그만하고 ^어내바리면 ^어그야 ^어말노 ^어남의 ^어웃음 ^어우습바 ^어랑만 ^어되고 ^어말터이다. ^어그리야 ^어하난 ^어수잇나.
 그래도 ^어학본이 ^어죽기를 ^어괴쓰고 ^어달음 ^어질하 ^어야 ^어쳐 ^어쳐 ^어편 ^어에 ^어쳐 ^어쳐 ^어이 ^어곳 ^어사 ^어람들 ^어이 ^어무엇 ^어인지 ^어혀 ^어드 ^어난 ^어소 ^어래 ^어가 ^어들 ^어니 ^어곳 ^어까 ^어왔 ^어다. ^어그러 ^어나 ^어가 ^어삼 ^어은 ^어점 ^어침 ^어침 ^어라 ^어난 ^어듯 ^어하고 ^어더 ^어욱 ^어조 ^어기 ^어가 ^어난 ^어다.
 그가 ^어용 ^어기를 ^어분 ^어발 ^어하 ^어야 ^어달 ^어음 ^어질 ^어하 ^어였다. ^어이 ^어미 ^어는 ^어해 ^어난 ^어디 ^어평 ^어선 ^어하 ^어로 ^어나 ^어려 ^어야 ^어다. ^어그 ^어것이 ^어흥 ^어사 ^어히 ^어핏 ^어덩 ^어어 ^어리 ^어가 ^어라 ^어한다. ^어그 ^어런 ^어게 ^어똥 ^어을 ^어보 ^어고 ^어난 ^어학 ^어갓 ^어다. ^어해 ^어가 ^어이 ^어러 ^어케 ^어똥 ^어을 ^어보 ^어고 ^어난 ^어학 ^어갓 ^어다.

본이 ^어아 ^어무 ^어청 ^어정 ^어없 ^어이 ^어달 ^어아 ^어다 ^어라 ^어난 ^어다. ^어그 ^어러 ^어한 ^어죽 ^어쳐 ^어편 ^어에 ^어쳐 ^어도 ^어학 ^어본 ^어이 ^어다 ^어름 ^어질 ^어하 ^어야 ^어여 ^어음을 ^어보 ^어고, ^어손 ^어짓 ^어하 ^어야 ^어불 ^어으 ^어오.
 그는 ^어두 ^어령 ^어이 ^어돈 ^어담 ^어은 ^어모 ^어자 ^어를 ^어들 ^어고 ^어섯 ^어슴 ^어을 ^어보 ^어았 ^어다. ^어그 ^어리 ^어한 ^어죽 ^어학 ^어본 ^어이 ^어속 ^어으로 ^어생 ^어각 ^어하 ^어되,
 「자, ^어그 ^어만 ^어하 ^어면 ^어되 ^어난 ^어구 ^어나. ^어쳐 ^어쌍 ^어은 ^어내 ^어것 ^어이 ^어로 ^어구 ^어나」
 하 ^어았 ^어다. ^어그 ^어리 ^어하 ^어다 ^어가 ^어다 ^어시
 「그 ^어래 ^어도 ^어밋 ^어치 ^어다 ^어가 ^어지 ^어못 ^어하 ^어면 ^어나 ^어난 ^어거 ^어털 ^어이 ^어나 ^어어 ^어찌 ^어하 ^어나」
 고 ^어인 ^어해 ^어복 ^어장 ^어을 ^어질 ^어니 ^어난 ^어듯 ^어생 ^어각 ^어하 ^어야 ^어다.
 학 ^어본 ^어이 ^어해 ^어를 ^어보 ^어았 ^어다. ^어그 ^어리 ^어하 ^어고 ^어한 ^어참 ^어만 ^어더 ^어가 ^어면 ^어되 ^어겟 ^어다 ^어하 ^어고, ^어또 ^어잇 ^어는 ^어힘 ^어을 ^어다 ^어하 ^어야 ^어달 ^어아 ^어다 ^어라 ^어난 ^어다. ^어그 ^어러 ^어나 ^어발 ^어이 ^어벌 ^어벌 ^어벌 ^어떨 ^어녀 ^어쳐 ^어다 ^어시 ^어난 ^어잘 ^어나

가 ^어지 ^어를 ^어아 ^어니 ^어한 ^어다. ^어그 ^어것 ^어을 ^어억 ^어지 ^어로 ^어질 ^어질 ^어질 ^어떨 ^어면 ^어쳐 ^어다 ^어라 ^어난 ^어다.
 그 ^어가 ^어이 ^어러 ^어케 ^어산 ^어밋 ^어헤 ^어다 ^어다 ^어르 ^어니,
 사 ^어방 ^어이 ^어검 ^어은 ^어장 ^어막 ^어을 ^어나 ^어린 ^어듯 ^어얇 ^어얇 ^어하 ^어았 ^어다. ^어그 ^어가 ^어얼 ^어른 ^어눈 ^어을 ^어뜨 ^어고, ^어사 ^어면 ^어을 ^어들 ^어너 ^어보 ^어았 ^어다. ^어해 ^어난 ^어발 ^어쳐 ^어다 ^어혀 ^어러 ^어진 ^어되 ^어다.
 「그 ^어만 ^어랑 ^어패 ^어를 ^어하 ^어나 ^어나」
 고 ^어한 ^어란 ^어하 ^어았 ^어다.
 겨 ^어우 ^어산 ^어밋 ^어헤 ^어를 ^어다 ^어다 ^어랐 ^어난 ^어데, ^어이 ^어때 ^어산 ^어꼭 ^어대 ^어기 ^어에 ^어쳐 ^어쳐 ^어이 ^어곳 ^어사 ^어람 ^어들 ^어이 ^어모 ^어혀 ^어어 ^어쳐 ^어쳐 ^어요 ^어란 ^어히 ^어혀 ^어드 ^어난 ^어소 ^어래 ^어도 ^어귀 ^어에 ^어드 ^어러 ^어오 ^어지 ^어안 ^어이 ^어한 ^어다.
 그 ^어래 ^어도 ^어마 ^어암 ^어은 ^어오 ^어허 ^어려 ^어여 ^어기 ^어쳐 ^어산 ^어꼭 ^어대 ^어기 ^어에 ^어쳐 ^어쳐 ^어보 ^어이 ^어지 ^어안 ^어이 ^어하 ^어나, ^어아 ^어직 ^어보 ^어일 ^어터 ^어이 ^어지 ^어하 ^어야 ^어다.

「그래서 학본이 면해 산 꼭대기
 를 향하여 숨이 꼭꼭 다쳐 치켜
 올른다.」
 꼭대기
 산꼭대기는 얼마만큼 남은 빛이
 앓다. 그곳에 난 그 모자도 잇고,
 웃두령도 있다——그난 이상한 우
 음을 띄고, 학본을 내려다본다.
 학본은 이것저것 료할때가 안
 이다. 숨은 철틈없이 북받치고 가
 삼은 러지나듯 하다. 그러면서도 두
 령 잇난 곳까지 이력처럼 왔다. 그
 래서 손을 내미러 두령의 든 모
 자를 붓드렸다.
 그러한즉 두령이
 성였 「성공하얏소……」
 소리 질르고
 「되얏소 되얏소. 그 땅은 인케

당신것이오」
 라고 잇대여 소리 질른다.
 학본의 하인이 달려드려 그를 구
 조하러 하얏다. 가만하 본즉, 이
 학본은 임의 입으로 피를 토하고
 목숨이 헐어졌다. 이곳 사람들이 학
 본을 불상하 녀겨 조상하는 뜻을
 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다 함
 의게 그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
 처서 그 하인이 광이를 들고 그 문
 을 땅을 팠다. 그 광중은 학본의
 머리로서 발외진데, 그 기리를 말
 하면 근볼과 룩척이다. 요만큼으
 로 그 시체가 넉넉히 문혔다.
 (끝)

宋完植 編

最新 日鮮大字典

◎定價 一圓五十錢
 送料 十錢

- 지에서이 책을 普通 다른 字典
 特色을 갖후어 있다.
 一、字數가 가장 豊富하여 朝鮮、
 日本、中國의 俗字까지 無漏收
 載한것
 二、朝鮮文 訓釋을 新綴字法(統
 一)으로 한것
 三、解釋을 가장 詳細히 한것
 四、古代의 儀器、服飾 및 動植
 物을 插圖한것
 五、外國語 譯字는 原語를 對照
 한것
 六、古代의 地名、山名、水名、
 國名等을 現今의 것과 對照한것
 七、草書 篆書를 插入한것
 八、音考가 잇는것

〔本社로 注文하신이
 에게는 二割引 提供、
 送料는 本會가 負擔〕

文學과 文士와 文章

(2) 李 光 洙

文學도 그와 같아서 人生의 生活中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를 詩라든지 小說이라든지 劇이라든지, 其他 무슨 形式으로든지 글 卽 文章을 가지고 表現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사람이 느끼는 힘이 다 같다고 하면, 文學도 必要가 없고, 宗教도 必要가 없겠지요. 마치 사람사람이 아는 힘이 다 같다고 하면, 學問도 必要 없고 書籍이나 學校나 學者나 先生의 必要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마는 사람이란 神秘해서 두가지 異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體力, 五官力은 母論이요, 知力이나 感情力이나 想像力이나 意志力이 千差萬別로 다른 것이요, 들재는 다르기는 다르면서도 무슨 일을 당하거나 남의 말을 들으면 알아듣는 것입니다. 卽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因이 다具備하여서 그 因들의 發現이 緣을 따라서 先後次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藝術家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느끼는 힘이 銳敏하게 發達이 되어서 예사 사람으로는 못

느끼는바를 느끼는 種類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느끼는바를 예사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色彩라든지, 音響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음죽임이라든지, 文章의 능난한 재주로 表現한 것이 그림이 되고 音樂이 되고, 춤이 되고, 彫刻이나 建築이 되고, 文學이 되는 것입니다. 에미슨이 그의 詩人論에 詩人은 萬民의 代言人이라 한 것이 이러한 消息인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緣만 얻으면 속에 숨었던 因이 發作이 되는 것이 마치 청냥가비에 불의 因이 있어도 거기 前에는 언케든지 불이 아니나다가 한번 그을 곳에 그으면, 곧 불이 나는 것과 같은 까닭에 이 藝術家들의 작품을 보고는, 아하 참 그런데 하고 藝術家가 느끼는바와 같은바를 느끼고, 一種의 기쁨을 兼하여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注意할 것은 사람의 性質이란 숨었던 힘이 한번만 무슨 緣으로든지 깨어나면 그것은 중척로 다시 죽지는 아니하고 漸漸자라는 性質을 가졌다는 것이니, 教育의 基礎原理가 여기 그 結果로 보아서는 없었던 情緒가 새로 심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藝術家의 作品에 緣해서 한번 깬 慈悲라든지, 敬虔이라든지, 崇嚴이라든지, 또 나쁜편으로 보면 忿怒라든지, 憎惡이라든지, 嫉妬 淫盪이라든지 하는 感情들도 한번 깬 뒤에는 그와 類似的한 實生活이나 藝術品을 對하는 때마다 더욱더욱 자라는 것입니다.

니다. 이런 모양으로 藝術의 實際的, 功利的 效果가 派生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슴한 것은 藝術 全體에 對한 것이지만 고대로 文學에 適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文學이 좋은 文學일까, 어떤 文士가 좋은 文學을 지을 수가 있을까, 文章이란 文學에 對하여 어떠한 關係를 가졌을까 하는 本問題에 들어가는 내일 이 時間에 다시 말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文學이 좋은 文學일까 하는 問題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이 問題도 꽤 말슴 많은 問題여서 甲이 이러한 文學을 讚揚하면, 乙은 그러한 文學은 排斥하며, 乙이 이러한 文學을 내세웁니다. 가장 顯著한 例를 들면, 같은 쇠익스피어의 作品을 가지고도 케레는 쇠익스피어만을 원기 爲해서라도 英語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돌스토이는 쇠익스피어의 代表的 傑作이라는 해볼렐 같은 것까지도 人生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없으니, 惡文學이라고 막 攻擊하였습니다. 그 돌스토이가 極口稱揚한 유고의 레미세라블로 말하더라도 自然主義者들이나, 또 맑스主義者 評論家の 눈에는 時代에 뒤 떨어진 잡교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좋은 文學의 標準, 即 文學의 價値를 재이는 尺度는 求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差異가 생기는 까닭은 時代思潮의

變遷 들재로는 個性의 人生觀의 差異와 變遷에 있는 것인데, 時代思潮란 理論에 依한 것이라 하더라도 一種의 群衆心理여서 대단히 곳곳한 케 人生觀에서 不同的 사람이면 그리로 淸솔러들어가는 것이 마치 衣服의 流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男子의 긴 키고리라 팔동바지가 지나가고 女子들의 치마와 키고리 기럭지가 해마다 變하는 것과 같아서 時代思潮란 若干의 永遠性있는 자취를 人類의 思想에 남기고는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二三千年이나 歲月을 지난 文學은 말할 것도 없고, 百年의 生命을 누린 文學도 몇번인지 모르게 時代思潮의 攻擊과 埋葬을 받고 나려오지 아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文學的 作品中에서 오랜 時代의 많은 忘却과 埋葬의 厄을 받아서 스러지는 수 없는 作品中에 오래오래 살아 남아서 빛나는 作品에는 대체 어떠한 特色이 있나—이것이 文學的 作品의 價値를 評하는데, 가장 重要하고 信憑할만한 要素라고 생각합니다.

케 그리고 하면, 個人批評家의 意見은 뛰어난게 큰 人格과 識見을 가진이가 아니고는 첫째로는 우에 말슴한 時代思潮의 暗示의 魔醉가 되는 同時에 自己 個性의 特異한 氣質과 性癖의 驅使를 받기가 쉬우므로 嚴正한 意味에서 公正한 判斷을 그들에게서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살아가고 여러 사람에게 원

허길 本質的 價値를 가진 文學的 作品에 對하여서
는 批評家들의 던지는 攻擊의 들은 마치 바위에 던
지는 닭의 알과 같은 것이어서, 一時 그 作品의 빛
을 大衆의 눈에서 감출수가 있을는지 모르나, 얼마
아니하여서 다시 들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혹 個性의 差異를 過大하게 보아서 甲의 좋아하는
것이 반듯이 乙의 좋아하는바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文學的 作品도 사람을 따라서 맞고 아니 맞는것이 各
各 다른것이 萬人에게 다 맞을 文學은 없다고 하
지마는, 여기는 分明히 一理가 있지마는, 大體로 보
면 人類의 個性의 差異한 枝葉的이지 根幹的은 아
닌것이니, 比喻해 말하면, 夫婦의 愛라든지, 子女에게
對한 恩情이라든지, 友情의 아름다움이라든지, 宇宙와
人生에 對한 여러가지 感激이라든지, 生의 慾望과 死
의 恐怖라든지, 義理라든지, 義俠이라든지, 淫亂, 吝嗇
利己心, 嫉妬, 忿怒같은 사람의 弱點이라든지는 個人
을 따라서 濃淡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本質的 差異는
없고, 個人뿐 아니라 種族的으로나 時代的으로도 그
리 變遷이 있는것이 아니니, 一言以蔽之하면, 사람의
道德的 生活의 根幹이 되는 感情生活은 時間과 空
間을 超越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漢土의
文學이나 外國文學을 愛讀하고 또 古代文學을 愛讀
할수 있는것이 情生活의 普遍性이라는 根本原理에서

나온것인가 합니다.

以上 말씀한대서 여러분께서는 벌써 좋은 文學價
値, 높은 文學, 다른 價値는 且置하더라도, 時間的으
로나 空間的으로 普遍性을 가질만한 文學이 무엇일
가는 想像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即 永久性과 普遍
性을 가지려면 文學은 人生生活의 永久性 있고 普遍
性있는 方面을 題目으로 또는 內容으로 할것이라 함
입니다. 地球가 宇宙의 中心이라고 우리 知識이 생
각하던 때나 地球가 太陽系 수많은 별중에 한낱 變
변증지못한 거의 다 죽어가는 별에 不過하다고 생
각하게된 오늘에나 우리 人類의 感情만은 變함이 없
이 男子와 女子가 서로 사랑하여 夫婦가 되고 빠가
회도록 일하여 子女를 벌어들이고 帝王이 되리라 大
富豪가 되리라 하야 野心과 勇氣와 殘忍性을 보이
고 달과 별과 山水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帝國과 共和國이 아무리 바꾸이고 哲學의 體系와 科
學의 發見이 몇 千번 變하더라도, 飛行機를 타고
南北極을 휘돌더라도 有情然의 느끼는 生活만은 마
치 元素나 에너지를 같을 變形이 있을지언정, 生
滅이 없는 모양입니다. 人生의 이 方面이야말로 人
生生活의 本流요, 主流요, 뿌리요, 줄거리여서, 이 方
面을 爲하야 宗教가 생기고 藝術이 생기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事實上 어케 말씀한 支那의 詩經

이라든지 印度、猶太、希臘等の 古代文學이라든지 三千年의 긴歲月에 生命을 維持해온 文學이 그 生命을 維持한 理由는 그 속에 發表된 科學이나 哲學이나 社會制度의 理論이나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科學이나 理論이나 또는 制度는 이미 다 歷史의 무덤속에 들어가 재가 되어버렸건마는, 사람의 느끼던 生活만이 三十年後의 오늘에도 우리의 가슴에 따뜻한 血脈을 가지고 부딪쳐서 그네와 같이 울고 웃고 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것은 文學의 題目과 材料에 關한 것에 不過합니다. 宇宙全體가 文學의 材料로 人間全體가 文學의 材料입니다. 그러나 이 材料가 文學이 되려며는 文學을 짓는 사람 곧 文士를 要하는것입니다. 마치 좋은 香氣와 단 汁을 가진 꽃이 아무리 滿山遍野하더라도 그것을 採集해서 醗酵에 固有한 分泌物 化合을 시켜서 오직 그 혼자만이 아는 秘方으로 釀造를 하는 꿀벌이라는 일군이 없이는 꿀은 얻지 못할것입니다. 文學에 있어서 꿀벌의 所任을 하는이가 文士인데, 이 文士가 예사사람보다 銳이 敏하게 宇宙와 人生을 살피는 눈과 느끼는 情과 情의 眞에 얹은 한방울 이슬을 보고 宇宙의 機微를 直覺하는 直覺力과를 길로 걸어가서 사람 하나를 보고 人生의 秘密를 想像하는 남달리 發達된 想像力을 가

지고 一篇의 詩를 마음속에 마련한다 하면, 그는 이 에 꿀벌이가 花粉과 花蜜을 採取해들인것이요, 이것을 그 文士가 가진 人格의 分泌物로 반죽하여 그가 多年 苦心하여서 닦은 文章이라는 秘方으로 表現하여 一篇의 詩가 讀者에게 提供되는것이 꿀벌로 말하면 꿀을 빚어내인것입니다.

시조

滄波엔 明月이요 靑山엔 淸風이라,
淸風 明月이 高樓에 가득 차니,
紅塵에 막혔던 胸襟이 豁然開를.

바다도 좋다하고 靑山도 좋다하거늘,
바다와 靑山이 한곳에 피단말가,
하물며 淸風 明月 있으니 仙境인가.

누우면 山月이요 앉으면 海月이라,
가만히 눈 감으면 胸中에도 明月 있다,
五六島 스쳐가는 배도 明月 실고.

어이 같거나 어이 같거나,
이 淸風 明月 두고 내 어이 같거나,
잠이야 아무 때 못 자라 밤새도록.

(春園이 二十餘年前 海雲臺에서 지은것)

조선역사강화 (三) 상고편

을지문 덕의수 병적멸

이때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에게 굴욕을 당한것은 결코 국력이 쇠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지나대륙은 이른바 남북조(南北朝)시대인 북방 색외(塞外) 민족과 남방 한(漢) 민족들의 흥폐소장이 들이었고, 더욱 핏근한 서편쪽에는 그란과 돌궐등 강성한 민족이 저끔내기로 틈을 엿보므로, 양식과 군기를 쳐죽하고, 민심은 휴양하여서 서북방면의 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라리 남방을 허소히 하였기때문입니다. 혼란참담한 이백년간의 남북조를 수합하여 대륙에 다시 통일한 국가를 세운자는 수(隋)나라러니, 이때 고구려의 동양왕이 앞질러 위무를 빛내기 위하여 구년(西력 五九八年)에 말갈의 무리를 데리고 그 요서(遼西)를 침습하며, 수나라 임금 문제(文帝)가 노하여 수륙군으로써 멀리 들어왔다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 아들 양제(煬帝)는 공명심이 과한자라, 영양왕이십삼년(西력 六一二年)에 물과 바다 백만의 군사로써 친히 요동으로 출마하였으나, 고구려에는 미리 준비가 있고, 또 을지문덕이란 지혜와 용맹이 겸비한 명장이 있어, 적군을 맞이하여 기껏 피곤하게

한 뒤에 살수의 한번 차움에 그 천두 삼십만명을 거의다 북벌하였으며, 수양제가 더욱 절분하고져 하여, 그 의년과 또 의년에 해마다 천국의 힘을 기울여서 들어와 침로하였으나, 두번 다 고구려의 한성도 깨드리지 못하고 공환하여, 이 빌미로 그드나 그 나라를 망하기에 이르고, 당(唐)이 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의남방 제진출

고구려는 북방이 괴자누룩하며, 다시 갈날을 남쪽으로 돌리려 할새, 남방의 대적이 인케는 신라이므로, 기회있는때로 그 북쪽 변방을 침략하고, 백제가 또한 이것을 기회로하여 무왕(武王) 이래로 신라의 서쪽땅을 자주 침탈하며, 더욱 그 아들 의자왕(義慈王)은 즉위하던 의년으로 친히 동경(東征)을 시험하여 신라의 사십여성을 빼앗고 일변 장수를 보내어 대야성을 점령하니, 대야성은 신라국 서쪽의 요해지이므로 백방으로 회복을 피하였으나 이루지못하였으며, 또 의년(西력 六四二年)에는 백제가 연합을 만들어 당항성을 빼앗아서 신라의 당나라와 교통하는 길을 막으려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라가 외교에 전력함

신라는 이렇게 북배로 적을 받고, 형세가 아주 고립되었으나, 국민의 의기는 자못 현양하여 상하일심으로 보

수 진취의 피를 가추 시설하고 그대로 불급하며, 당나라의 세력을 이용하기를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방법으로 당나라의 환심을 사고, 또 동경을 끌어서 당나라로 하여금 조경(調停)의 사신을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에 보내여 당항성의 군사를 철과하게 하였더니, 백제는 들었으나, 고구려는 신라가 땅 오백리를 빼앗은 것(고구려와 수나라의 차움에)을 도루 내지 아니하면 차움을 그만 들수 없다 하여, 당나라 임금의 권고를 불리치었습니다.

연개소문 의당 병적파

이때에 고구려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란 영걸이 보장왕이란 이를 응립하고, 마리가 되어 일본과 연합한 백제와 당과 화친하는 신라를 단박에 때려부수고, 안친한 자 주정신에 의지한 통일국가들 세우랑으로 철대한 군국 정치의 아래에 국력을 기르며 가만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연개소문은 문무겸전한 인물로 외교에도 마음을 써서 자제를 당나라에 보낸다 당나라의 국교인 도교를 친한다 하여, 당나라하의 불화를 즐기지 아니하였으나, 이 당항성 탈취의 지조는 실로 그 깊은 경륜의 일단이므로, 여러번 당나라로서 특사가 왔건마는 일항 거척하였읍니다. 이 동안에 신라의 외교적 활약이 더욱 맹렬을 더하여, 드디어 당나라 임

금의 고구려에 대한 노염을 충동하여, 보장왕(寶藏王) 삼년(외력 六四四年)에 당태종(唐太宗)으로 하여금 고구려에 무력적 보복을 더하게 하였읍니다. 그해 십일월에 당태종이 수륙군 삼십만을 발하고, 신라, 백제, 해, 그란등으로 하여금 각기 구원병을 내어서 각방으로 고구려를 에워들게한 이듬해에 당태종이 친히 요동으로 나와서 요동성을 무찌르고 곧 평양으로 내려오려 하더니, 안시성에 이르러는 팔십 팔일을 에우고 죽을 힘을 다하여 이내 깨드리지 못하여 친진할수 없이 되고, 날이 춥고 양식이 떨어져 고하여 하는수 없이 군사를 돌리는데 이번 차움에 당나라 군사가 아무 일없는것 없고, 한갓 병마를 수없이 잃으며, 당태종의 후회가 깊었습니다. 그래도 수나라 이래로 분함을 생각하고는 여러번 군사를 보내어 줄곳 고구려를 집커거리었으며, 번번이 무료히 돌아가고 죽을 때 가서는 유언으로쳐 다시 고구려를 건터리지 말라고 하였읍니다.

신라가 에접근

이 동안에 신라의 처지는 더욱 고립하여지고, 그대로 당나라의 힘을 빌지 아니하지 못하여 신라의 교당책(交唐策)은 얼마쯤 염치를 모를하게도 되었읍니다. 그 관제(官制)를 옮겨오며, 그 복색을 본뜨며 자제를 보내어 숙위(宿衛)를 시키며, 연호(年號)를 더하여 당

나라의 그것을 가지어다 쓰며, 고운계집과 안호물과 비위에 맞을 글을 지어 보내는 등 무릇 그 환심을 살수 있는 일이면 거의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에는 김춘추와 내정에는 김유신을 두 기동으로 하여 이때 신라 국민의 호국운동(護國運動) 검등 일적 신국가 건설 운동은 눈물이 날만치 지성 열심스러웠습니다. 아무것보다도 상하일심 내외협조의 협동정신에 있어서 간연할바가 없었습니다.

【주석】

一、 남북조(南北朝) — 지나에서 동진(東晉)이 멸망하고 송(宋)이 대신하며, 북위(北魏)가 양자강 북쪽 땅을 차지하여, 이로부터 남북이 대립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남쪽에는 송의 뒤를 이어 제, 양, 진(齊), 양(梁), 양(梁), 양(梁), 양(梁) 북쪽에 는 북위의 뒤에 동위, 서위(東魏, 西魏)로 쪼개지고 또 그를 이어 북제, 북주, 수(北齊, 北周, 隋)가 서로 닳아가며 지내어 왔다. 서력 四三四年부터 五八九년까지의 약 一百五十年간을 남북조시대라 한다.

二、 그란(契丹) — 동호(東胡)의 유족, 동부 내몽고(內蒙古) 서라목륵하(西刺木倫河) 상류지방에 유목(游牧)하고 있더니 야를아보기(耶律阿保機)가 그 북쪽을 통일하여 임황(臨潢)에 도읍하고 황제로 자칭하니, 이때부터 세력이 점점 강성하였다.

三、 돌궐(突厥) — 외몽고(外蒙古) 서변 알타이산 지방을 웅거한 토기족(土耳古族)의 한 부족.

四、 수(隋) — 서력 五八一년에 북주(北周)의 정승 양견(楊

堅) 세운 나라.

五、 영양왕(嬰陽王) — 고구려 제 二十 六세(서력 五九〇—六一八) 임금.

七、 살수(薩水) — 지방 평안 청천강.

八、 무왕(武王) — 백제 제 三十세 서력 六〇〇—六四五) 임금.

九、 의자왕(義慈王) — 백제 제 三十一세(서력 六四五—六六〇) 곧 백제의 최종왕.

一〇、 대야성(大耶城) — 신라 서쪽 지경의 요새. 지방 경상남도 협천군.

一一、 당항성(棠項城) — 지방 경기도 남양(南陽) 근처.

一三、 마리지(莫離支) — 고구려의 벼슬 이름, 가장 높은 자리.

一四、 도교(道教) — 지나 후한(後漢) 말세에 장도릉(張道陵)이 창도한 것으로 신선사상(神仙思想), 오행설(五行說) 잡회(讖諱)등을 주창하는 일종의 종교.

一五、 보장왕(寶藏王) — 고구려 제 二十八세(서력 六四二—六六七) 임금. 고구려의 최종왕.

一六、 당태종(唐太宗) — 이세민(李世民)이니, 지나 당나라 제 이세 임금.

一七、 안시성(安市城) — 지방 만주 개평현(蓋平縣) 동북.

一八、 김춘추(金春秋) — 신라 제 이십 오세 진지왕(眞智王)의 손자, 진덕여왕의 뒤를 이 임금이 되니, 곧 제 이십 구세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六、 을지문덕 — 一一, 연개소문 — 一九, 김유신을 다음 호에

로빈손 절도 표류기 (四)

그동안에 나는 매일 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새와 토끼 등을 잡았다. 반찬을 만들어 먹기로 하였으며, 어느날은 염소를 한놈 놓았더니, 다만 다치기만하고도, 집으로 데려다가 길들려가며 길렀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은 뒤 그리 오래지 아니하여 하루는 뒷뜰에 가서 보주, 보리가 짝이 나오는고로 놀랐습니다. 이상스럽게 여기어 가만히 생각하여 보주, 향자에 겨와 북더진줄 알고, 버린중에 보리씨가 섞였던것인줄 알았습니다. 이에 내가 친만다행으로 알아 이것을 애지중지하여, 씨를 많이 받아두고 해마다 뿌려서 먹을 양식을 작만하였읍니다. 이리저럭 장마때가 되었읍니다. 어느날은 우연히 몸이 쇠약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몸이 불다듯 덥고,

또 괴로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불

로만 연명하고 지내매,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되 아무리 하여도 살지는 못하리라 하였읍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더니만 병세가 조금 돌리는고로 적이 마음을 놓고 있었더니, 수일 지난 뒤에 다시 학질이 되어 앓는데, 이중에 무엇이라고 형용할수 없는 무서운 꿈을 꾸었읍니다. —내가 벽밖에 앉아 있은즉 불길의 무렵부터 올라오는 불, 구름속으로서 한사람이 내려와서 땅을 흔들고 또 손에 든 큰 창을 두루먼서 내게 향하여 버락 같은 소리로,

「너는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죽어가나니라」

하여 위협하는구려 — 그리하고 꿈을 깨었는데, 그때의 무심던 일은 지금 한입으로는 다 말할수 없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여 보주, 이때 나는 정말이지 법교(法敎)를 잊어버리고 부모의 훈계도 배반하고 팔던 동안 몸을 항해에 버려, 여기저기 유

랑하는 몸이 되었는지라. 우연히

「그런 못생긴 짓을 하면 정말 하느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하신 아버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부지불각에 몸이 떨리는고로 케절로

「하느님이시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는 이제 이러한 고생을 하옵나이다」

하고 소리질렀읍니다 — 이때 나는 수년동안 처음으로 진정으로 나오는 기도를 하느님께 바쳤읍니다.

그로부터 급히 성경(聖經)을 집어 내어

「무서운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란 구절을 읽고 자리 옆에 꿇어앉아 하느님의 나리신 이 약속을 나에게도 배부시기를 축원하고 잤읍니다. 이튿날 일어난 때에 나는 아무일 없이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또 기쁜듯이 가득하였읍니다. 이 후로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또 하느님께 기도드

리고 지내더니, 이리하는중에 내 생
각에 하느님의 대자대비하옵심이 나
같은 큰 죄인도 용서하옵심을 깊이
깊이 깨달았읍니다.

그해 가을이을시다. 내가 기르던 고
양이가 어디로 간고로 이상하게 여
기었더니, 어느날은 새끼 세마리를 데
리고 돌아온것을 본즉, 어디 가서 새
끼를 낳아가지고 온것인듯하며, 또
그때부터 앵무를 잡아다가 말을 가
르치며, 또 나무가지로 채롱을 결으
며, 흙으로 병과 항아리 등속을 만들
어 불도 구워 여러가지로 썼읍니다.

그뒤 수년동안은 바다로 지나는 배
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
보지 못하면서, 이러한 떨어진 심에
형영이 상조(形影相吊)하면서 지내는
데, 하느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이미 잃어버린것에 희망을 두
고 있지 아니한고로 도리어 마음이
평화하여 아무 귀함에 빠지지도 아
니하고 참 태평으로 지내었읍니다.
또 속담에 「필요는 창작의 어미라」

하더니, 과연 나는 여러가지 필요에
걸려 거기 적당한것을 만들어 내었
읍니다.

이때 나의 모양은 어떠한가
하면 염소 가죽으로 바지 켜고 리병
거지까지 만들어 쓰고, 또 신발과 버
신이 없으므로 이와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가죽끈으로 피어신고, 또 허
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양편 허구리
에는 뿔과 도끼를 차고, 어깨에는
부대 비슷하게 만든것을 피어 결어
화약 등속을 넣어 두었으며, 또 밖결
에 나갈 때에는 어깨에 총을 메고
태양의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가죽
일산을 받고 다녔읍니다.

그뒤에 이상스러운 일이 생겨서
내 평생에 한 단락을 지었읍니다.
그 일은 무엇이나 하면, 어느날은 심
의 먼곳을 시찰하려 가서 해변 세
사람을 만난즉, 흡사한 사람의 발자
국이 모래위에 박혀있는고로, 매우
마음에 놀라서 마치 벼락맞은것처
럼 서서 어디 숨어있지나 아니한가

하여 귀를 기우리고 사면을 엿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
이지도 아니하는고로, 먼대까지 살펴
보랴므로 높다란 언덕위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또한 아무것도 보
이지 아니합디다. 그래서 다시 처음
보던 곳에 이르러 잘못 보지나 아
니하였나 하고 그 발자국을 본즉,
사람의 자국이 명백한데 나 보답은 조
금 적터이다.

이미 그것이 발자국인줄 밝히 알
고 본즉, 새삼스럽게 놀라서 바깥
집으로 돌아갈새, 두걸음만큼도 돌아
다보고 세걸음만큼도 돌아다보아 뒤
에 사람이나 따르지 아니하나 하여
아무것도 없은즉, 무엇 잃어버린듯도
하고 또 마음도 놓여 결었는데, 먼
대 무성한 초목을 여러번 사람으로
속았읍니다.

그날밤은 마침내 원 밤새도록 눈
침도 불여보지 못하고, 그 이른날 아
침에도 이상한 생각만 가졌다 하
니, 그것이 도깨비는 아닌가 하여,

소름도 끼치며 또 나와 같은 표류하
에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
도 나며, 자나깨나 무서운 생각이 나
는고로, 연방하는님께 기도를 드리
고 또 성경을 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즉, 편곳에

「하느님을 기다리고 좋아하여라.
그가 너의 마음에 힘을 주시리
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니, 하느
님을 기다리라」

고 씨어있는고로 내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여져, 이에 성
경위에 꿰어앉자 하느님께 간절하게
감사기도를 올리었습니다.

그뒤 내가 또 먼 해변에 갔다가
사람의 해골과 수족뼈가 헤어쳐 있
음을 보고 다시 놀랐고, 또 그 옆에
불을 피운 터가 있음을 보고, 이것
은 꼭 야만들이 커의 사람을 잡아
먹은 터이로다 생각하고, 즉시 이상
스러운 마음으로 급히 집에 돌아와
그따위 흉악한들이 나 사는 곳에는
오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

리었습니다.

이 무서운것을 본 뒤로는 일년동
안 아무조록 밖결에 나가지 아니하
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고, 총을 놓
아 그 소리를 듣고와서는 야단이라
하여 총도 그리 놓지 못하였고, 불
도 또한 많이 피지 아니하였습니
다. 그러나 사람이 살려하면 불없이
는 하는수 없으므로, 어디 불을 피워도
남모를 곳이 없는가 하여 찾아다니
가 똑 좋은 곳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느날 숲만들 나무를 꺾을양으로
집에서 나아가 어느 수평이에서 나
무를 하고 있은즉, 큰 바위가 가로
놓이고 그결에 큰 구멍이 뚫어지었
는고로, 그속에도 들어가본즉 그속
은 흰신 개야(開野)가 되었는데,
깜깜한 속에 무슨 뻔뻔거리는것이 있
는고로 놀라기는 하였으나 용기를 분
발하여 회를 손에 들고 속으로 들어
갔더니, 몇 걸음 가지 아니하여 커속
으로 앉는 소리가 들리므로 다시 놀
라서 귀를 기울일즉, 그 소리가 마

치란식하는것 같은지라, 그 이상하다
하고 회를 앞에 내밀면서 들어간즉,
늪은 염소가 앉고 있더라. 이염소
를 보즉, 지금까지 무심던것은 봄눈
슬듯 없어지고 염소 조처를 어찌할고
하는 생각이 나는데, 염소는 나를 매
우 무서워하는 모양이더라.

이 굴혈의 주위는 사방 각 이십
척은 되는데, 쓸쓸하기 한량없고, 회를
들고 들어간즉 구멍은 매우 좁어가
나 또한 속으로 들어갈만 하더라.
그날은 그리하고 말았으나, 그 이
튤날은 납축을 만들어서 다시 그속
을 탐검할새, 심야아드쯤 나아간즉,
또 벼란간에 구멍이 커지고 천장도
이십척이나 될듯한데, 의례히 속은 깜
깜하나 바닥은 평평하고 들도 말랐
는지라, 이것은 개이 찾자 주인이 내
어놓는 셈이라 이에 바삐 화약과 기
타 여러가지 축축한 물건들 가지어다
가 쌓아두었습니다. 그 염소는 그날
그만 죽어버리므로, 그굴 옆에 광
중을 짓고 묻어주었습니다. (또잇소)

崔鉉培氏著 **중등 조선 말본** 畝 八十錢

崔鉉培氏著 **우 리 말 본** 畝 九十錢

金料奉氏著 **김 더 조선 말본** 畝 二圓五錢

申明均氏著 **한글 歷代文選** 畝 一圓

申明均氏著 **周時經先生遺稿** 畝 一圓

中央印書館 **訓民正音原本** 畝 二十錢

朝鮮語學會 **한글마춤법동일안** 畝 二十錢

權憲奎氏著 **朝鮮語文經緯** 畝 一圓

張志暎氏著 **朝鮮語綴字法講座** 畝 一圓

金克培氏著 **한글鐵筆書自習書** 畝 五十五錢

宋完植氏著 **最新日鮮大字典** 畝 一圓五錢

◆新刊紹介

靑空洗心記 全一冊

朝鮮 文壇의 巨星 春城盧子泳氏의 作으로 隨筆、日記紀行、詩歌等 四十篇을 收載한 것이니、一讀에 涼味를 頗覺한다。 滌暑의 讀物로 薦한다。 定價 八十錢。 發行所 京城府堅志洞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한글 支社

鎮南浦三和町 姜 焄
光州邑 崔奇一
東京市品川區大井水神町 姜鎬哲
二〇七九 朴周陽
載寧邑日新里 李明克
鐵山邑東平洞 劉天德
義州邑鄉校洞 朴潤元
平北七坪市 金成煥
尙州邑 金永斗
統營邑 鄭德寶
高敞邑 陳春海

社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置하고저 하시는데는 한번 書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朝鮮語學會

定價	
一個月	七錢
三個月	二十錢
六個月	四十錢
一年	七十五錢
代金은 반듯이 送金을 要함。	

昭和十年 七月廿九日 印刷
昭和十年 八月一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允宰**

印刷人 **金鎮浩**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行所 **朝鮮語學會**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金億譯 志憂及草

五百部限定 普及版
 定價七十錢 送料並
 豪華限定版 二十五部
 定價 五圓 送料並

朝鮮에 新詩運動이 생긴지도 벌써 二十五年이다。始終如一하게 이方面을 開拓한 詩人이 있다하면 그는 岸曙이다。

이러한 岸曙가 言語를 닦고 想을 다듬어 譯詩集으로의 最高峯을 쌓아놓았으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漢詩譯集 「志憂草」이다。이야기보다도 實例가 尹金昌緒의 有名한 伊川歌「打起黃鶯兒、莫教 技上啼、啼時驚妾夢、不得到遼西」라한것을 우리 詩人 岸曙는 가장簡單하게

넘어 얹은피꼬리 울리지 마소。
 을때에 내꿈 깨면 왔든님 가오。

하면서 韻까지 짚아놓았으니, 이어찌 놀내지 아니할일인가。果然 詩란 어떠한것을 勿論하고 詩人의 詩的表現을 거치리라야 비로소 詩가 되는것이다。

古代의文化를 繼承하는 意味로 보든지 오랫동안 閉却해서는 아니될 漢詩가 얼마나 이 詩人의 移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藝苑에 새로운 面을 開拓하였는가。實로 二百篇가까운 이 漢詩譯集이야말로 두고두고 씀 우리의기쁨이 될것이다。

京城堅志洞三二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

昭和十九年八月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三十九年八月十一日(每月一回發行)

한글 第三卷 第六號